

韓國密敎 形成과 神印宗 關係 考察

정성준*

- I. 緒言
- II. 四天王寺와 文豆婁道場
- III. 高麗時代 神印宗의 活躍
- IV. 結語

요약문

신라의 불교 수용기 밀교 신앙은 불교의 종교적 영험을 알려 불국토로서 국가사 회윤리를 정착게 하고, 四天王寺를 중심으로 護國 信仰의 면모를 일찍이 갖추는데 이 바지하여 고려 시대 神印宗을 비롯한 밀교 종파성립에 이바지하였다. 신인종과 관련 한 사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성과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첫째, 『灌頂經』을 통해 三岐山을 근거지로 한 신라 시대 주술신앙의 면모를 고찰하여 密本과 明朝의 관계를 밝혔다. 명랑이 의지한 문두루법은 『관정경』 제7권에 해당하는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으로 密本과 명랑 三岐山과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았으며 신라 왕실 에 친근하였고, 밀본이 능했던 『藥師經』은 神力과 治病을 다루는 것으로 異譯인 『관 정경』 제12권과 관계가 있다. 명랑이 의지한 文豆婁道場은 『관정경』 제7권에 해당 하기 때문에 두 밀교승 사이의 깊은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신라승들의 도당 을 통한 밀교 유학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불교를 밀교의 극성기로 발현시켜 많은 도량이 시설되었지만, 그 중심은 위국도량이 중심이었다. 혜통을 연원으로 삼는 摠持宗이나 持念業의 밀교 종파가 공존했지만, 신인종이나 충지종 모두 재난과 질병을 막는 위국도량에 참여했고 밀교 문헌도 공유하였다. 셋째, 고려말 禪宗이 부상하면 서 밀교와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 禪定藏으로서 선사들의 밀교에 대한 조예가 적지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chsjoon@gmail.com

않았고, 사실상 밀교와 禪宗이 교유하는 禪密兼修의 풍도가 마련되었다. 넷째, 조선 불교의 특징은 선종이 중심이 되지만 고려 시대 마련된 호국 도량의 면모와 禪密兼修의 경향이 여전히 계승되었다. 조선 초 밀교 종단이 절멸하였지만, 왕실이 주도한 호국 도량과 수록재와 밀교 전적의 간행, 오늘날 한국불교에 여전히 존재하는 도량과 예불, 의례 등은 禪, 看經, 念佛과 더불어 조선불교를 지탱했던 外護로서 그 연원은 삼기산과 신인종을 始原으로 오늘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神印宗, 韓國佛敎史, 密敎, 明朗, 四天王寺, 護國佛敎, 文豆婁道場

I. 緒言

한국불교사 가운데 밀교는 불교수입 초기 신라불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고려 시대 神印宗을 비롯한 摠持宗, 持念業 등 밀교 종파의 활약은 조선 시대를 포함해 한국불교의 護國, 護法적 성격을 규정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고려 시대 신인종의 개창은 文武王 시대 明朗法師의 활약과 文豆婁道場, 四天王寺의 건립에 의해 종파성립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신라 시대 사천왕사를 중심으로 문두루도량과 같은 護國 儀式이 거행되고, 지배층과 불교 집단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불교의 종교적 영험이 알려지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한 국가사회윤리의 정착과 안정화도 이루어졌다. 고려 시대 왕건에 의한 現聖寺의 건립과 신인종의 개창, 그리고 많은 도량이 국가적 재산을 물리치는 밀교 도량으로 개설되었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명랑이나 惠通에 대해 善無畏삼장의 법을 이은 것은 가탁이지만 불교 종파로서 師資相承의 法統을 의식하던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인종과 관련한 연구는 자료와 사료의 절대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三國遺事』, 『高麗史』를 중심으로 高翊晉, 金煥泰, 文明大, 徐閔吉, 鄭丙三 등 석학들의 연구가 있고 김수연, 옥나영 등 주목할 신진연구도 있다.

본 연구는 고려 시대 개창된 신인종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해 몇 가지 나아간 시각들을 제기해보려 한다. 신라 시대 삼기산을 중심으로 密本과 明朗

의 연관성과 문두루도량의 성격, 밀교를 수행하고 도당하여 선무외로부터 법을 계승한 집단, 고려 시대 摠持宗, 持念業과의 비교, 고려 시대 密敎와 禪의 교유를 통해 조선 시대 禪密兼修 풍토의 마련 등을 새롭게 조명해보려 한다.

오늘날 조선 시대에 간행된 적지 않은 密敎 典籍들을 볼 수 있고, 梵唄를 통해 水陸齋를 비롯한 적지 않은 도량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爲國道場과 禪, 華嚴, 密敎의 복합적 성격들은 신라의 불교수용 초기 三岐山의 誦咒집단과 密本, 明朗에 시원을 둔 것이다. 희소한 자료를 두고 기존 신인종 관련 연구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해 새로운 시각들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II. 四天王寺와 文豆婁道場

1. 三岐山과 密本

고려 시대 一然是 『삼국유사』5 「神呪」편을 구성하여 密本, 惠通, 明朗의 기록을 담고 있다. 밀교와 관련하여 密本은 『藥師經』을 유통하고 惠通은 治病에 능하여 신라의 불교 수용기 불교의 神異를 알려 불교가 신라에 정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로 明朗이 있으며 명랑으로 인한 四天王寺의 건립과 文豆婁道場과 같은 호국의식은 지배층과 불교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전쟁에 치친 왕실과 백성들의 위무에 기여하여 고려 시대 神印宗 개창의 토대가 되었다. 『高麗史』 기록에 의하면 태조의 고려건국을 도운 승려들로 廣學과 大緣은 명랑의 법을 이었는데,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세울 당시 역시 해적들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安惠와 朗融의 후예인 廣學과 大緣의 두 대덕에게 작법으로써 그들을 물리쳐 주기를 청하였으니, 모두 명랑대사의 계통을 전해 받은 스님들이었다. 그러므로 두 분 다 위로 용수에 이르기까지는 9祖가 된다. 또한, 태조는 現聖寺를 장건하여서 한 종파의 근저로 삼았다.1)

고려 태조는 왕위에 오른 이듬해 도내(송악·개경)에다 法王·慈雲·內帝釋院·舍那 등 10개 寺刹을 세웠는데,²⁾ 법왕사의 본존으로는 비로자나불을 모셔 신라의 밀교가 고려 초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명랑에 대한 『삼국유사』의 다른 기록은, “密本법사 후, 明朗이라는 고승이 있었다. 그는 용궁에 들어가서 神印을 얻어 神遊林에 절을 짓고 기도를 드려 여러 차례 이웃 나라의 적을 물리쳤다”³⁾ 라고 하였다. 神印은 『佛說灌頂七萬二千神王護比丘呪經』(이하 『灌頂經』)의 제7권에 해당하는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⁴⁾에 근거한 것으로 역자인 帛尸梨密多羅는 龜茲國 왕자 출신이다. 西晉 永嘉 연간(307~312년)에 중국으로 들어가, 建康의 建初寺에 머물며 『灌頂經』, 『孔雀王雜神呪』 등 총 3부 14권을 한역하고 335년경에 80여 세로 입적했다.⁵⁾ 기록에는 백시리밀다라는 당대의 인재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경전의 역경뿐만 아니라 인도의 梵唄를 전한 기록도 있으며, 활동 시기 이전 중국에는 불교의 진언이나 주술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⁶⁾

중국에 유학한 慈藏(590년~658년)과 義湘(625-702)의 활약 시기를 보면 중국

1) 『三國遺事』 卷 5, 明朗神印條.

2) 『高麗史』 卷 1, 太祖 2年條.

3) 『三國遺事』 卷 5, 神呪 6 惠通降龍條.

4) 『佛說灌頂七萬二千神王護比丘呪經』(T21).

5) 『高僧傳』 1 「譯經」 帛尸梨密多羅傳(T50, 327c-328a): 백시리밀다라는 중국말로 吉友라 하며 서역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이 高座講하는 자리라 불렀다. 傳하길, “국왕의 아들로써 마땅히 대를 이어야 했다. 그러나 나라를 아우에게 양보하고 남이 모르게 태백(太伯: 주나라 태왕의 큰아들로 왕위를 사양하고 막내인 公季에게 물려주었다.)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를 마음속으로 깨달아 드디어 사문이 되었다.” 백시리밀다라는 타고난 자태가 높고 밝았다. 신령한 풍채가 뛰어나서 직접 그를 대하면 남들보다 우뚝 빼어났다. 晋나라 永嘉(307~313) 중에 처음 중국에 왔다. 난리를 만나 자 양자강을 건너와서 建初寺에 머물렀다. 丞相 王導가 한 번 보자마자 기이하게 여겨서, 어울릴 만한 같은 무리로 생각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太尉 庾元規·光祿 周伯仁·太常 謝幼與·廷尉 桓茂倫은 모두 일대의 名士이다. … 중략 … 백시리밀다라는 呪術을 잘하여서 향하는 곳마다 모두 영험이 있었다. 과거 강남에는 주문을 외우는 법술이 없었다. 백시리밀다라가 『孔雀王經』을 번역하여 여러 神呪를 밝혔다. 또한, 제자 覓歷에게는 높은 소리의 梵唄를 가르쳐 주었다. 지금까지 그 소리가 전한다. 晋나라 咸康(335~342) 연간 중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이는 80여 세이다. … 중략 … 백시리밀다라는 항상 石子岡의 동쪽에 있으면서 頭陀(46)를 행하였다. 그리고 삶을 마친 후에는 여기에 묻혔다. 성제成帝는 그의 풍모를 그리워하여 탑을 무덤에다 세웠다. 후에 關右의 어떤 사문이 서울에 와서 머물면서 비로소 무덤이 있는 곳에 절을 일으켰다. 陳郡의 謝琨이 그 일을 도와 완성하고, 지나간 일을 추모하여 기리고자 高座寺라고 하였다.

6) 『大宋僧史略』上 (T54, 240c), “帛尸梨密多羅本西域人…時江東未有咒法…咒法之始也”.

에 『관정경』의 유행과 신라의 수용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명랑 이전 인물로 선덕왕(善德王, 재위 632~647) 때 密本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은 흥륜사 승 법척의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다. 이때 밀본이 『藥師經』을 읽자 그가 가지고 있던 육환장이 왕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 한 마리 늙은 여우와 법척을 찢러 뜯아래로 내쳤다. 또 승상 김양도는 어릴 적 몸이 뻗뻗하게 굳는 병에 걸려서 궁중에 귀신들이 떼 지어 몰려와 난장판을 벌이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金良圖의 아버지가 밀본법사를 부르니, 법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四方大力神들이 와서 귀신의 무리를 잡아갔고 양도의 병도 나았다”⁷⁾라고 하였다. 김양도는 金庾信과 함께 삼국을 통일하였으나 670년 당에서 옥사하는 화를 입었다. 金春實밀은 김양도와 선덕여왕의 활약시기를 근거로 밀본을 선덕여왕 재위초기 인물로 추정하였다.⁸⁾

밀본이 거주한 곳은 경주시 안강읍 三岐山으로 『三國史記』 권32 雜誌 「祭祀條」에도 靈山으로 기록되어 있다.⁹⁾ 林南壽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密本과 老居士를 동일인물로 보고 있는데¹⁰⁾ 삼기산은 圓光이 수행했던 곳으로 산신으로부터 呪術僧의 주종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법사(원광)의 속성은 薛氏로 王京 사람이다. 처음에 중이 되어 佛法을 배웠는데 나이 30세에 한가히 지내면서도 도를 닦으려고 생각하여 三岐山에 홀로 살기를 4년, 이때 중 하나가 와서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절을 짓고 2년 동안 살았다. 그는 사람됨이 강하고 용맹스러우며 呪術을 배우기도 좋아했다”라고 하였다.¹¹⁾

원광은 입적할 때 삼기산 金谷寺에 부도를 모셨고, 密本도 금곡사에 살았다고 하였다. 또 김유신이 일찍이 늙은 거사와 교분이 두터웠다고 하였는데, 이가 곧 밀본이었다.¹²⁾ 그 때문에 삼기산은 주술승과 密本이 의지하던 靈山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원광이 山神을 만나 중국에 유학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신흥 불교 집단과 토속신앙 집단 간의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7) 『三國遺事』 卷 5 神呪 6 密本摧邪條.

8) 金春實(1985), 「삼국시대의 금동약사여래입상 연구」, 『美術資料』 36, 6-7.

9) 鄭永鎭(1973), 「圓光法師과 삼岐山 金谷寺」 『史叢』 17, 199-218.

10) 林南壽(2005), 「古代韓國 藥師信仰의 展開樣相과 造像」 『史林』 제24호, 82-83.

11) 『三國遺事』 卷 4 義解 5 圓光西學條.

12) 『三國遺事』 卷 5 神呪 6 密本摧邪條.

밀본법사가 의지했던 『藥師經』은 여러 판본이 있었지만¹³⁾ 시기적으로는 帛尸梨蜜多羅역의 『灌頂經』 제12권에 해당하는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脫經』이 가장 이른다.

『약사경』에 해당하는 『관정경』 12권에는 신장의 명호를 있지만 진언이 나오는 것은 『관정경』 제7권 등 다른 권수에 존재한다. 삼기산에 산신을 괴롭혔던 呪術僧이 의지했다면 『관정경』의 다른 권본에 의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밀본이 『약사경』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약사경』과 『관정경』을 구분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명랑이 설행한 문두루법은 단순한 呪誦이 아니라 道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명랑의 활약시기를 고려하면 중국에 유학하여 초기밀교의 것이지만 나름 정비된 도량을 목격하고 신라에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명랑이 설행한 문두루법과 신인종의 시원은 삼기산과 『관정경』의 존재와 더불어 밀본·명랑의 친근성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四天王寺와 文頭婁道場

『삼국유사』의 기록을 요약하면 명랑의 父는 신라 관등 중 8등급에 해당하는 沙干才良이며, 母는 蘇判茂林의 딸이고, 중고기 신라 대표 승려인 慈藏의 누이라고 하였다. 명랑의 외가는 중고기 신라 대표가문이었기 때문에 명랑이 정치적으로 중대 왕실과 밀접했고, 김천존의 추천으로 명랑이 사천왕사 터에서 문두루도량을 개설한 인연이 되었다. 『삼국유사』에는 문두루법을 설행한 기록은 『삼국유사』 여러 곳에 전한다.¹⁴⁾ 『삼국유사』 권2 『文武王法敏條의』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 13) 『藥師經』의 이본은 다음과 같다.: ① 帛尸梨蜜多羅역 『佛說灌頂拔除過罪生死得脫經』 1권; ② 宋의 慧簡역 『藥師瑠璃光經』 1권; ③ 隋의 達摩笈多역 『佛說藥師如來本願經』 1권; ④ 唐의 玄奘역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1권; ⑤ 唐나라 義淨역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 2권; 唐 玄奘역의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과 義淨역의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이 그 뒤를 잇는데 『관정경』 12권의 이역에 해당하는 것은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이다.
- 14) 명랑의 기록으로 『삼국유사』 권2 文虎王法敏條와 권4 義解5 二惠同塵條, 義湘傳教條, 권5 神呪6 惠通降龍조와 明朗神印조에 기록이 남아있다.

이때 당나라의 遊兵과 여러 장병이 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우리를 치려고 한 것을 왕이 알고 군사를 내었다. 다음 해에 당의 고종이 인문을 불러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병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하였는데 우리를 해하니 무슨 이유이나?” 하고 감옥에 가둔 다음, 군사 50만을 훈련하고 설방을 장수로 하여 신라를 치게 하였다. 이때 義湘法師가 서쪽 당나라로 가서 유학하고 있다가 인문을 찾아 나아가 보니 인문이 그 사실을 말하였다. 의상이 곧 돌아와서 왕에게 아뢰니 왕은 매우 두려워하여 여러 신하를 모아놓고 방어책을 물었다. 각간 金天尊이 아뢰기를, “근자에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해왔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하였다. 이에 왕은 명랑을 불러 말하길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하였다. 명랑이 말하기를 “彩帛으로 절을 임시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채백으로 절을 짓고 풀로써 五方神像을 만들고 瑜伽明僧 12사람으로 하여금 명랑을 上首로 하여 문두루의 비밀법을 쓰게 했다. 이때 당병과 신라의 병사가 접전도 벌이기 전에 바람과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당나라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 후에 절을 고쳐서 다시 짓고 四天王寺라 이름하였는데, 지금까지도 壇席이 없어지지 않았다.¹⁵⁾

위의 내용에는 ‘명랑이 용궁에서 법을 이었다’을 볼 수 있지만 도당하여 善無畏 三藏(637~735의 법을 사사한 내용은 빠져있다. 명랑은 632~635년간 당나라에 갔다가 신라로 돌아올 때 '바다 용의 청에 의해, 바닷속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황금 1000냥을 보시받아 땅 밑을 잠행하여 경주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나왔고 '이에 자기 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고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장식하니 유난히 광채가 났기 때문에 절 이름을 金光寺라고 하였다.¹⁶⁾ 선무외삼장은 명랑 이후에 입당했기 때문에 명랑의 선무외삼장 사법은 불가능하다.¹⁷⁾

『삼국유사』에 명랑은 도당하여 선무외삼장으로부터 밀교를 수학한 후 용궁을 거

15) 『三國遺事』 권2 奇異, 文武王法敏條.

16) 『三國遺事』 卷 5 神呪 6 明朗神印條.

17) 이에 대한 석학들의 많은 연구가 있다. 배경은 신라시대 不可思議를 비롯한 입당승의 활약으로 밀교의 師資相承의 범통을 의식한 假託으로 훗날 고려 시대 신인종의 근거를 마련할 때 밀교 종단의 전통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을 추측한다. 『三國遺事』 권4 義解5 二惠同塵條에는, “神印의 祖師 明朗이 새로 金剛寺를 세우고 낙성회를 열었는데, 高僧들이 다 모였으나 오직 해공만은 오지 않았다. 이에 명랑이 향을 피우고 정성껏 기도했더니 조금 후에 공이 왔다. 이때 큰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도 공의 옷은 젖지 않았고 발에 진흙도 묻지 않았다”라고 하여 고려조에 신인 조사로 명랑을 세운 기록을 보인다.

쳐 자신의 우물로 나와 집을 바꾸어 金光寺를 건립했다고 하였다. 명랑은 문무왕대¹⁸⁾ 금광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문두루법 선행의 계기로 사천왕사가 창건(668-680) 되었고,¹⁹⁾ 기록에는 건립연대를 文武王이 19년(679) 8월로 지목하고 있다.

선덕여왕은 16년(647) 8월에 죽어 시호를 ‘善德’이라 하고 狼山에 장사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은 병이 없을 때 신하들에게 “내가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일에 죽을 것이니 나를 忉利天 가운데에 묻어라.”라고 하였는데, 신하들이 그곳을 알지 못해 어디냐고 묻자 낭산 남쪽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뒤 예언한 그 날에 여왕이 죽자 낭산 남쪽에 장사지냈는데, 그 뒤 제30대 임금 文武王이 19년(679) 8월에 四天王寺를 왕릉 아래에 세웠다. 불경에 따르면 四天王天 위에 忉利天이 있다고 한다.²⁰⁾

선덕 여왕대 밀본 시대 삼기산을 중심으로 주술승이 있지만 『관정경』의 존재는 더욱 정비된 밀교의식을 담고 있다. 『관정경』을 구성하고 있는 12권의 경명은 다음과 같다.

〈표 1〉 『관정경(灌頂經)』의 경명과 내용

	경명	내용
1	『灌頂七萬二千神王護比丘呪經』	灌頂儀式, 172 神왕의 진언과 공덕
2	『灌頂十二萬神王護比丘尼經』	비구니를 수호하는 선신과 진언
3	『灌頂三歸五戒帶佩護身呪經』	3귀의를 위한 36의 善神, 5계를 받는 이들을 위한 25명의 선신들의 진언
4	『灌頂百結神王護身呪經』(『灌頂章句結願神呪經』)	소원성취를 위한 100 神왕의 진언과 공덕

18) 부왕 태종무열왕 때 파진찬으로서 兵部令을 역임했으며 얼마 뒤 태자로 책봉되었다. 660년(태종무열왕 7) 태종무열왕과 당나라의 蘇定方이 연합해 백제를 정벌할 때 법민도 종군해 큰 공을 세웠다. 661년 태종무열왕이 삼국을 미처 통일하지 못하고 죽자 법민이 왕위를 계승해 삼국통일의 과업을 완수하였다.

19) 『三國遺事』 卷 5 神呪 6 明朗神印條.

20) 『三國史記』 卷 5 新羅本紀 5 善德王, 卷 7 新羅本紀 7 文武王 下; 『三國遺事』 卷 1 紀異 1 善德王知幾三事; 高翊晉은 四天王寺의 寺名에 대해 『金光明經』과 四天王信仰의 有關성과 함께 명랑의 절터를 金光寺라고 한 것에서 金光護國思想의 도량이라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高翊晉(1987), 『韓國古代佛敎思想社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2-275)

5	『灌頂呪宮宅神王守鎮左右經』	5방의 鬼王들의 명호와 진언
6	『灌頂塚墓因緣四方神呪經』	불탑의 공덕, 4방의 灌頂呪의 공덕
7	『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	文頭婁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방과 진언
8	『灌頂摩尼羅亶大神呪經』	摩尼羅亶의 설치와 과거 7불, 8대 보살, 500開士, 10대 제자, 33天, 35龍王, 33王, 24鬼, 49山精鬼 등의 명호 염불과 진언
9	『灌頂召五方龍王攝疫毒神呪土品經』	5방 용왕의 관정진언; 禪提비구를 유아리국에 보내시어 그 진언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여 다 낫게 하셨다.
10	『灌頂梵天神策經』	범천왕진언, 8선신의 명호
11	『灌頂隨願往生十方淨土經』	임종후 시방불토에 완생하는 진언과 공덕
12	『灌頂拔除過罪生死得度經』(『藥師瑠璃光佛本願功德經』·『灌頂章句十二神王結願呪經』·『拔除過罪生死得度經』)	『藥師經』 異譯本, 藥師如來의 정도, 치병, 호국 신앙 등

위 경전에서 『관정범천신책경』과 12권에 해당하는 『약사경』을 제외하면 대부분 진언을 설하지만 道場을 갖춘 것은 제7권인 『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이 유일하다.

『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석천이 붓다에게 온갖 재액을 없앨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붓다는 文頭婁法을 비롯한 진언 등을 설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전에 설한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관정경』 의식의 세부내용

	내용	세부내용	悉地·成就
1	5方35萬 鬼王	5방 각기 7만, 총 35만귀왕의 가피	치병, 제재,
2	五方神 가피	문두루목에 오방신장의 모습을 새김 1) 亶遮阿加 동방 청색 2) 摩呵祇斗 남방 적색 3) 移兜涅羅 서방 백색 4) 摩訶伽尼 북방 검정색 5) 烏呬羅孃 중앙 황색	치병, 벽사, 초복, 제악
3	七神王 가피	문두루목에 명호를 새김 1) 多賴哆 2) 僧伽履 3) 婆摩斯	제악, 벽사,

3	七神王 가피	4) 坻婆那 5) 曇婆羅 6) 彌輸多 7) 耆那舍	
4	四王 가피	동방: 提多羅吒 서방: 毗留波叉 남방: 毗留離 북방: 毗沙門	제재, 축귀
5	七佛 灌頂無相神印	維衛佛 文頭婁無相章句	
6		式佛 文頭婁無相章句	
7		隨葉佛 文頭婁無相章句	
8		拘樓秦 文頭婁無相章句	
9		拘那含牟尼佛 文頭婁無相章句	
10		迦葉佛 文頭婁無相章句	
11		釋迦牟尼佛 文頭婁無相章句	
12	阿利陁 女神呪	7 神王呪: 因臺羅 和林羅 波耶越羅 宋林羅 檀特羅 照頭摩羅 金毗羅	

『관정경』 제7권의 『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의 내용을 『삼국유사』에서 명랑이 시설한 문두루법과 비교하면 『삼국유사』의 「문호왕법민조」에서 말한 5방신의 명호는 1) 亶遮阿加 2) 亶遮阿加 3) 移兜涅羅 4) 摩訶伽尼 5) 烏呾羅孃이며, 7신왕은 1) 多賴哆 2) 僧伽履 3) 婆摩斯 4) 坻婆那 5) 曇婆羅 6) 彌輸多 7) 耆那舍 이다. 이들 12신의 가피 가운데 적군의 배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은 없지만, 治病, 辟邪, 招福, 除惡을 비롯한 가피에는 원적을 물리치는 정도의 내용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文頭婁는 산스크리트어 Mudra의 음사어로 印, 標幟, 標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단목에 12신상의 이름을 새겨 文頭婁木에 가피하는 것은 저들 신의 위신력을 문두루목을 표치삼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¹⁾ 『삼국유사』에는,

21) 『大日經』 성립 이후의 중기 밀교는 身語意 三密 가운데 身相이나 手印을 통해 만다라의 본존이나 밀의를 표현하는 수행을 제기한다. 무드라의 경우 手印은 손가락을 통해 진리의 표상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眞實攝經』에는 무드라에 대한 방대한 밀교의 이론이 전개된다.(김영덕(1996), 「金剛界三十七尊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瑜伽宗의 明僧 12명에게 명랑법사를 上首로 하여 문두루 비밀법을 행했다’라고 하였는데 밀교의 三密瑜伽는 진언 염송에 의해 본존의 가피를 입거나 본존과 상응하는 경계에 몰입했을 것이다.²²⁾

『관정경』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 문두루로 산을 찍으면[印] 산이 무너지고, 모든 樹木을 찍으면 그로 인해 수목이 부러지고, 강이나 바다를 찍으면 그로 인해서 수원지의 물이 고갈되며, 물이나 불을 향해 찍으면 물이나 불이 그로 인해서 소멸된다. 만일 사방에서 돌풍이 불어 흩날지를 날릴 때, 인(印)을 들어 그곳으로 향하면 곧 바람이 멈추고 불지 않으며, 인을 들어 땅을 향하면 땅이 움직인다. 만일 모든 곳에서 도적이 어지럽게 일어날 때 인을 들어 그곳을 향하면 곧 흩어져 없어지며, 다시는 악한 뜻을 품지 않고 모두 자비로운 마음을 내며, 양쪽이 다 화해하여 서로 약탈하지 않고 각기 바른 정지로 돌아간다. 이 대신왕의 印章이 향하는 곳은 이롭지 않은 경우가 없다. 몸에 찍으면 404가지 병이 다 낫는다. 만일 이 인을 지닌 사람이 1章만 염송해도 呪說이 된다.²³⁾

그런데 명랑은 문두루목을 쓰지 않고 급한 대로 채백과 풀로 문두루목을 대신했기 때문에 채백은 5방신의 신상의 색을 하고 5방신과 7신왕은 사람이 대신했다. 여기서 12인의 유가명승은 문두루목을 인격화한 것인데 瑜伽(yoga)는 인도에서 선정과 의식을 다루는 수행이다. 불교의 瑜伽唯識의 수행의 경우 轉依를 통해 분별지의 번뇌에 의지하는 心識을 無分別智의 심식에 의지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을 수행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유가명승 12인은 5방신과 7귀왕의 진언이나 명호를 외워 〇신왕의 가피를 기대했다 할 수 있다. 이런 유추가 어렵지 않은 것은

22) 『佛說灌頂經』卷7 『伏魔封印大神呪經』脚注(T21, 515b)에 “胡言文豆婁 普言神印也”라고 하였다; 정병삼은 『약사경』에 대해 유가승과의 친숙한 관계를 지적했다. 중국에서 靖邁, 窺基, 智開 등의 유식승들이 『약사경』 주석서를 찬술한 것과 唐 慧觀의 『藥師經疏』(682년 경)이 돈황문서로 일부 남아 있는 것들이 그것이며 신라 憬興과 道倫의 『藥師經疏』 저술, 그리고 大賢(-75)의 『本願藥師經古迹(藥師本願經古迹)記』 2권의 잔본이 그것이다. 『약사경』에 대한 주석에서 유식승들이 관심을 가졌던 특징이 신라불교에서도 확인된다(정병삼(2013),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교리적 해석과 신앙 활동」 『불교연구』 제39집, 8)

23) 『佛說灌頂經』(T21, 515c).

『관정경』에서, “만일 이 부처의 4부의 제자들 가운데 모든 사악한 귀신에게 홀려 털이 곤두서도록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스스로 너의 몸이 32相과 80種好와 紫磨金色의 몸에, 키는 1丈 6尺이고 목 뒤에는 日光이 있는 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라. 나의 몸을 상상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1,250명의 제자를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모든 보살승을 생각하라”²⁴⁾라고 하여 수행자가 두려움에 처할 때 스스로 붓다가 된다고 관상하여 마를 물리치는 방법을 미리 설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정경』에서는, “문두루법은 등근 나무에 귀신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 악귀를 굴복시키고 온갖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악귀를 굴복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부처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제자들과 보살을 생각하고 다섯 방위의 신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귀신의 이름을 적은 나무, 문두루를 잘 보이는 곳에 둔다면 어떤 악귀도 범접하지 못한다. 만약 문두루를 산쪽으로 향하게 하면 산이 무너질 것이며, 강이나 바다로 향하게 하면 물이 마를 것이라 한다. 문두루법을 사용하면 물과 불, 바람 등 어떠한 자연 재해도 막을 수 있고, 악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자비롭게 변화시키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²⁵⁾라고 하였다. 문두루의 표치로 인해 신들의 위신력을 이어받아 여러 가지 불사를 하지만 한편으로 문두루도량의 설행자 자신이 곧 부처라는 관상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향점은 불법을 알고 부처가 되는 것이었다.

밀본은 『藥師經』에 의지해 치병과 벽사의 효험으로 선덕여왕과 승상 김양도의 신임을 받았을 것이다. 삼기산에서 산신을 괴롭힌 승려가 진언을 염송하였듯이 밀본의 『약사경』 신행도 讀經이나 誦咒에 의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밀본이 의지했던 『약사경』의 출처는 명확치 않지만 명랑의 『관정경』 제7권은 상당한 밀교도량의 모양을 갖추고, 유가와 신인의 초기 밀교 소재가 명확히 등장하고 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원군을 보내고 통일신라 시대에도 왜구의 노략질이 이어져 그치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불사가 있었다. 명랑법사가 문두루도량을 시설한 사천왕사는 오방신장과 12신의 신력을 빌어

24) 『佛說灌頂經』(T21, 515b).

25) 『佛說灌頂經』(T21, 515b).

도적을 물리치는 護國 道場의 중심이 되었다. 밀본과 명랑의 활동격차는 자장을 기준으로 채 멀지 않지만, 초기 『약사경』 독송 중심의 밀교가 도량을 갖춘 의계의 원형을 보일 정도로 발전한 것은 이후 신라불교가 밀교를 수용하기 위한 의식을 높여간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高麗時代 神印宗의 活動

1. 護國 道場의 繼承

『孤雲集』 제2권 「碑」 편에는 <無染和尚碑銘>이 있는데 여기에는, “海東 兩朝의 國師 禪和尚이 목욕을 마치고 가부좌를 한 채 示寂하였다.²⁶⁾”라고 하였고 이에 비문을 청한 내용에는 왕족들과 화상의 문인 가운데 釋通玄과 함께 사천왕사 上座인 釋慎符가 비명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사천왕사와 귀족의 외호를 짐작케 한다.

명랑의 중국유학은 신라에 유행하던 『관정경』에 대해 誦咒 이상의 密法이나 도량의 설행을 배우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을 것이고, 그로인해 사천왕사의 건립도 가능해졌다. 명랑의 귀국직후 중국에는 善無畏三藏의 入唐하였다. 선무외삼장으로 인해 중국에 입당해 밀교를 배우려던 승려들은 삼기산을 터잡아 활동했던 송주승들과 더불어 華嚴系의 승려들도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화엄은 義湘으로 시작하여 발전하였으나 선무외삼장이 입당하기 전까지 화엄의 수행이나 실참은 알려진 것이 없었다.

선무외삼장에 의한 밀교경전 『大日經』²⁷⁾의 번역은 경전의 설주가 毗盧遮那佛이고 경전 대부분은 초품인 「入眞言門住心品」을 제외하면 曼荼羅의 設壇과 觀想,

26) 菩薩戒弟子인 武州都督 蘇判 金鑑 執事侍郎 金寬柔 江江都護 金咸雄 全州別駕 金英雄은 모두 왕족 출신이다. 그들은 국가의 干城으로 임금의 덕을 보좌하면서 험난한 세상길에서 스승의 은혜에 힘입었다. 어찌 꼭 출가를 해야만 스승의 인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마침내 화상의 문인인 昭玄大德 釋通玄과 四天王寺 上座 釋慎符와 의논하기를, “스승이 돌아가시자 임금님도 비통하게 여겼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차마 마음을 불 꺼진 재처럼 만들고 허를 묶어 놓은 채 在三의 의리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하고는, 재가 제자와 출가 제자들이 서로 호응하여 시호와 塔銘을 허락해 줄 것을 위에 청하였다”라고 하였다.

27)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手印의 결행, 灌頂, 護摩 등의 실참과 의례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도당의 밀교승 가운데 선무외삼장의 법을 이은 不可思議는 저술인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의 부제에 ‘新羅國 零妙寺 不可思議撰’으로 되어 있다²⁸⁾가 찬술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마치는 부분에서 불가사의는 영묘사 소속을 다시 밝히고, “원컨대 이 책으로 인해 홀로라도 本不生의 도리를 보고, 이 가운데 증득하길 바란다.”²⁹⁾라고 하였다. 신라에는 일찍이 勝詮法師가 있어 葛項寺를 짓고 『화엄경』을 강의하였는데 갈항사터에 절을 짓고 零妙寺의 言寂法師는 큰누이가 照文皇太后이고, 작은누이는 敬信太王이라 하였다.³⁰⁾ 화엄을 매개로 한 승전과 언적의 인연이 불가사의에게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화엄계의 밀교수학의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명랑 이후 신라 밀교의 변화는 중기 밀교 시대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중심으로 眞言門에 의지해 성불을 도모하는 출세간적 목적이 뚜렷해졌다. 당 유학승들에 의하여 중기 밀교가 신라에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다.³¹⁾ 834년에 海雲이 쓴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에는 밀교경전 수만 권이 신라에 유입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³²⁾

경덕왕대(742-765) 眞表의 『供養次第祕法』의 기록은, “스님(진표율사)은 金山藪의 順濟법사에게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다. 순제법사는 沙彌戒를 주면서, 『供養次第祕法』 1권과 『占察善惡業報經』 2권을 전한다”³³⁾라고 하여 『점찰선악업보경』을 통해 불교 윤리관을 확산시키고, 『공양차제비법』에 따라 두타행을 실천하여 밀교의 관행이 신라사회 전반에 확산된 모습을 보여준다.³⁴⁾

28) HD3, 383a, “零妙寺僧釋不可思議撰”.

29) HD3, 409a, “此文造人新羅國 零妙之寺釋僧不可思議 隨分穿鑿 願此文見獨知於本不生理中證”.

30) 갈항사 석탑은 경상북도 金陵郡 葛項寺址에 있던 것을 1916년 경북궁으로 옮긴 것으로 이두체의 銘文에는 영묘사 言寂法師를 포함한 3남매에 의해 신라 景德王 17년(758)에 두 탑이 건립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1992)), “二塔 天寶十七年戊戌中立 在之姉妹三人業以成在之者 零妙寺言寂法師在 姉者照文皇太后君在 妹者敬信太王在也”.

31) 明曉, 玄超, 不可思議, 義林, 慧超, 惠日, 悟眞, 均亮, 弘印 등을 들며, 이 중에서 귀국이 확실한 승려는 의립과 혜일이다.

32) 海雲記,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 卷上(T51, 785), “我大興善寺三藏和尚 親禮五天重諮勝法教流天下大法盛傳所以新羅諸國經逾數萬”

33) 『三國遺事』 권 4, 義解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34) 박광연(2006), 20-24.

신라 멸망을 불과 20여 년 앞둔 54대 경명왕 때에 사천왕사의 벽화의 개가 우는 신이가 있었다.

제54대 경명왕 때인 정명 4년(918)에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울므로 사흘 동안 불경을 강설 풀이하여 이것을 물리쳤더니 한나절이 채 안되어 또 울었다. 정명 7년 경진년 2월에는 황룡사탑 그림자가 금모 사지의 집 뜰 안에 한 달이나 거꾸로 서 있었다. 또 10월에는 사천왕사 五方神의 활줄이 모두 끊어졌고, 벽화의 개가 뜰로 쫓아 나왔다가 다시 벽으로 들어갔다.³⁵⁾

신라 멸망의 암시와 사천왕사의 관계는 벽화의 개나 황룡사의 탑처럼 비상식적인 신이를 통한 경고가 인간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경고가 사천왕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천왕사가 신라의 멸망까지 호국과 위국의 도량으로서 변함없이 존속해온 사실을 증명한다.

고려의 건국 후 사천왕사의 기록은 왜구를 비롯해 兵難이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하려는 호국 도량으로서의 기록을 적지 않게 남기고 있다. 『高麗史』 「世家」에 나타난 사천왕사와 문두루도량의 기록은 문종 28년(1074) 7월 동경 사천왕사에서 蕃兵을 물리치기 위하여 27일 동안 문두루도량을 개설했던 것³⁶⁾과 이후 숙종 6년 4월, 예종 3년 7월(진혁사), 동왕 4년 4월(홍복영명·장경·금강사 등), 고종 4년 4월과 동년 12월(현성사)에도 문두루도량의 기록이 보인다.

또한 고려왕들도 국난이 있을 때마다 신인왕의 근저인 현성사에 행차한 기록은, 『고려사』 「세가」에서 인종 8년(1130) 4월 문하시중 李公壽가 現聖寺靈通寺 양 사찰에 齋를 설행한 것을 비롯해³⁷⁾ 이후 인종 13년 3월, 명종 5년 6월과 8월, 동 6년 10월, 고종 22년 9월, 동 43년 9월, 원종 13년 4월, 동 15년 4월, 충렬왕 1년 4월, 동 5년 11월, 동 11년 9월, 동 18년 9월, 충숙왕 1년 9월, 공민왕 1년 3월 등 많은 왕이 현성사에 행차하고 있다.

35) 『三國遺事』, 景明王 條.

36) 『高麗史』 「世家」 文宗 28年 7月條.

37) 『高麗史』 「世家」 仁宗 8年 4月條.

李奎報의 『東國 李相國 文集』 제39권 <西京金剛寺文豆婁道場文>에는, “불가사의한 교화는 항하수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국토에 널리 입혀지고, 가장 뛰어난 힘은 신인의 법문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 신통의 영험을 꼭진히 빌어 병사와 무기들은 전의를 감추어 밖으로는 전쟁에 패하여 수모를 당하리라는 근심이 영원히 없어지고, 안으로는 사직이 번창하여 중흥의 경사를 맛보았다.”³⁸⁾라고 하여 문두루도량을 중심으로 신인종의 성격이 국난극복의 밀교 도량이 서울행 되던 중심지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³⁹⁾

2. 宗典의 성립여부

고려 시대 존립했던 밀교 종단을 전하는 것으로 신인종과 더불어 總持宗와 持念業의 기록이 있다. 총지종은 惠通의 법을 이은 것으로 확실히 종파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총지종의 근거지인 총지사는 신라 신문효소왕 년간에 창건되었고,⁴⁰⁾ 이곳에서 고려 목종 10년(1007) 『寶篋印陀羅尼經』이 개관되었다.⁴¹⁾ 『牧隱集』 제29권 「詩」 편에는, “總持宗 省珠스님의 부탁을 받고 慈悲嶺 羅漢堂의 修造記를 써 주고 나서 짓다”라는 내용이나, 같은 책 제31권 「詩」 편에도, “總持宗 都大禪師에게 부치다”라는 시제가 보이기 때문에 고려말 총지종은 종단으로서 명확히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에, “懷正이 呪噤으로 왕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총애는 비할 데 없을 정도라서 직위나 상을 바라는 승려들은 모두 여기에 붙어서 뇌물을 바치고 탐하기에 지칠 줄을 몰랐다”⁴²⁾라고 하였는데 주금사는 醫業에 종사하는 송주승을 가리킨다.

持念業의 경우 명칭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말 崔滋(1186~1260)가 쓴 「持念業禪師祖猷爲大禪師教書」⁴³⁾에는 祖猷를 지념업 禪師라고 한 것 뿐이다. 여기에는,

38) 『東國李相國集』 卷 39, 佛道疏.

39) 고려 시대에는 80여 종의 법회, 설재, 도량 등의 불교의식이 설행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文豆婁道場, 仁王道場, 孔雀明王道場, 無能勝道場, 金光明道場, 消災道場, 大日王道場, 功德天道場, 灌頂道場, 曼荼羅道場, 眞言法席 등과 같이 순연한 밀교 의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서윤길(2006), 488-489).

40)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 下, 1104.

41) 千惠鳳, 「高麗 最高의 寶篋印陀羅尼經」(『국회도서관보』 제 9권 3호 및 『羅麗印刷術의 研究』 28).

42) 『高麗史』 「世家」 毅宗 11年 8月條.

“某는 충지의 법력으로써 학질과 역병을 몰아내어 사람들을 가르쳐 살린 것이 무릇 얼마인가”라고 하거나, “眞乘은 진언을 총섭하고 덕은 일정한 스승이 없고 착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스승이 되므로, 큰 號는 마땅히 크게 착한 이에게 加하여야 한다. 낙산사주지 선사 조유는 誦呪의 삼매력으로써 일체의 마귀를 제압할 수 있었다”⁴⁴⁾라고 하였다. 최자는, “眞乘은 진언을 총섭하고 덕은 일정한 스승이 없고 착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스승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많은 종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승이라 말할 것은 모든 불교의 진리를 통합하는 보편적인 수행도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념업의 경우 業은 『大日經』에서 밀교를 眞言門이라 한 것처럼 乘, 門, 道와 소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대가 고려말의 어지러운 상황이고 조유선사가 선과 밀교에 모두 능통했기 때문에 종파를 초월해 선사이면서 밀교를 수행했던 위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밀교종단이나 최소한의 수행의 풍도를 보이는 종파의 경우 지념업을 제외한다면 신인종은 명량, 충지종은 혜통을 잇는 법통을 세우고 있다. 명량이나 혜통 모두 중국에서 선무외삼장의 법을 이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풍의 宗譜나 宗典 등을 따로 내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고려시대 간행된 『梵書摠持集』은 梵字다라니 모음집으로 내용은 『대일경』을 위시해 밀교경전들의 다라니의 제목과 梵字로 다라니를 병기한 것이다.⁴⁵⁾ 고종 5년본(1218)의 경우 서문에는 一行記의 『大毘盧遮那成佛經疏』, 『大日經義釋』, 不空譯의 『金剛頂瑜伽最勝祕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儀軌』 등 唐代의 밀교 經論뿐 아니라, 覺苑의 『大日經義釋演密鈔』, 道殷의 『顯密圓通成佛心要』

43) 『東文選』 卷 27.

44) “然業淨屠者 雖自己分上 定熟慧圓 其利他之功 公然顯及於生民者 蓋寡矣 某 以摠持法力 驅除瘡痍 凡救活幾人耶”(『東文選』 卷 27, 『持念業禪師祖猷爲大禪師教書』) 및 同 官語에 “法不自立 因言而立 眞乘摠攝於眞言 德無常師 主善爲師 大號宜加於大善 洛山寺住持禪師祖猷 以摠持三昧力能攝伏一切魔”라고 하였다.

45) 『梵書摠持集』에 수록된 다라니의 종류는 全東赫, [梵書總持集 から見た高麗密教の性格』 『大正大學綜合佛教研究所年報』 11, 1989, ; 宗석(전동혁)(1995), 밀교의 수용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2)-밀교종파 충지종의 형성과 전개 중앙승가대학 교수 논문집 4, 57-60 ; 남권희(2005), 韓國記錄文化에 나타난 眞言의 流通 密教學報 7, 98~105 ; 서병패(2009), 81-82 참조.

集』 등 遼代 밀교저술까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종파는 이들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⁴⁶⁾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呪禁師를 비롯해 국가에 呪術僧을 양산할 수 있었던 집단이기 때문에 ‘진언을 수행으로 삼는 종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선시대 태종대의 기록을 보면, “태종1년 신사(1401, 건문) 5월 26일(갑인) 총지종의 승려 10인이 세 궁전에서 차례로 돌아가며 불경을 외우는 것을 폐지하였다. 또한 密院의 番드는 것을 없앴다. 처음에 총지종 승려 열 사람이 모두 料를 받고 輪番으로 三殿에 들어와서 眞言을 외었는데, 이를 “密員”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三司에서 다만 번드는 중의 料만 지급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모두 없애라고 명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태종 18년 무술(1418, 영락) 2월10일(신묘)의 기록에는, “총지종의 중들에게는 차하하지 말도록 전지하다. 총지종은 오로지 밀원의 方術로 遁甲하고 사람을 구료한다고 하여 설치한 것인데, 위의 종파의 중들은 그 직임을 알지 못하니, 이제 부터 그 職銜과 寺社의 주지는 差下하지 말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보인다. 총지종의 성격이 둔갑과 의료와 깊은 관계를 가진 기록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명종 16년(1186) 9월에는 鎭星이 木星을 범하여 내란이 염려되므로 광암총지의 두 절에서 佛頂消災道場을 개설하였다.⁴⁷⁾는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태조 4년 을해(1395) 4월 25일(무자)의 기록에는, “사신을 總持寺와 賢聖寺 등에 보내서 부처님께 재를 올려 天變을 제거하게 하였다.”⁴⁸⁾ 라는 기록이 있어 호국도량으로서 신인종과 총지종의 역할을 크게 구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인종을 국가위호의 종단으로, 총지종을 의약과 둔갑의 종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東國 李相國 文集』 제35권 「碑銘·墓誌」 편에도 華藏寺住持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의 碑銘에는, “兩宗五教는 教宗과 禪宗. 오교는 華嚴宗·南山律宗·涅槃宗·法相宗·神印宗이라 하였다.⁴⁹⁾ 그 때문에 신인종의 위세를 제외

46) 김수연은 『법서총지집』의 발간이 고려시대 종파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김수연(2015), 「고려시대 간행을 통해 본 고려밀교의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제41호, p207-208).

47) 『高麗史』 志 2 天文 2 참조.

48) http://db.itkc.or.kr/inLink?DCI=ITKC_JT_A0_A04_04A_25A_00040_2005_002_XML

한다면 충지종이나 지념업은 그에 비교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四天王寺나 現聖寺를 근거로한 神印宗의 위세가 가장 정통하다고 할 수 있다.

3. 朝鮮朝 佛敎에 끼친 影響

1) 護國 道場의 傳承

『東史綱目』 제4하에는, “태조 4년 을해(1395) 6월 1일(계해) 사신을 四天王寺 등처에 보내어 사천왕 道場을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 사천왕사를 여전히 호국을 위한 기도량의 근거로 의식한 점을 알 수 있다. 麗末鮮初의 인물로 李詹(1345(충목왕 1)~1405(태종 5))이 지은 『雙梅堂篋藏集』 卷 25 「疏類」⁵⁰⁾에는 <四天王道場疏>⁵¹⁾를 볼 수 있다. 또한 태종 1년 신인중에 대한 의식과 인물들이 여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權近의 『陽村集』⁵²⁾이다. 여기에는 圓公이라는 傳法師가 나오는 장면이 있다.

원공은 神印宗의 傳法師이다. 기품이 맑고 성정이 조용하며, 과묵하며 행실을 닦은 사람이다. 내 진실로 그를 좋아하여 方外의 벗으로 삼고, 또 아이들을 맡겨서 그 몽매한 것을 깨우치게 하였더니, 원공이 밤낮으로 가르쳐서 게으르지 않고 오직 성취 있기를 기약하기에 내가 더욱 중하게 여긴다. 建文 3년(1401, 태종 1) 봄에 鷄林 갑산사 주지로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이웃에 살고 있었으므로 사양하지 않고 가는 것이었다. 그곳에 가서 조석으로 봉양할 터인데 우리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가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어리고 약한 까닭에 차마

49)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020A_0290_010_0330_2008_006_XML

50) 한국문집총간 제6집에 수록. 본 문집의 저본은 아들 小畜이 편차·간행한 목판본의 殘卷(卷22~25)과 후손가에 傳存된 傳寫本(卷1~2)으로 되어 있다. 寫本은 年譜·詩이고 板本은 文으로서 이 가운데 假傳 작품도 실려 있다.

51) 『雙梅堂篋藏集』 卷 25 「疏類」, “佛鑑圓融 洞虛空而無碍 神威奮迅撼天地也非難 誠敬苟勤 靈麻卽邇 爰有川源之出 曾愆地脈之宜 春去秋來 背注盈科之派 雷轟電擊 無容閔德之資 振古如茲 至今爲梗 噫水性之既導 豈人爲之敢施 逝者如斯 雖智巧莫能疏鑿 予將安傲 惟神力可以維持 肆就祇林 式嚴淨範 區區之願 一一而詳 致令橫決之流 變爲環混而向 龍踏虎踞 保國勢之盤安 嬰慕犢從 係民心之輻湊”.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31A_0070_040_0080_2003_A006_XML

52) 『韓國文集叢刊』 제7집; 본 문집의 저본은 권근의 아들 蹈가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편차하여 초간한 뒤, 후손 儒가 1674년에 간행한 重本이다. 저자의 文 중에는 “東國史略論” 등의 글이 실려 있다.

천리 밖에 멀리 보내지 못하여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원공은 기뻐하지 않는 듯한 기색이 있더니, 또 그 무리 중에 慈惠한 자를 택하여 잘 부탁하였다.⁵³⁾

『陽村集』 권7 「序」 편에는 ‘送神印宗玉明上人’이라 하여 신인종 승려 玉明 스님에 대한 글을 볼 수 있는데 소개하면, “전에 내(양촌)가 司諫院에 있을 때 한 유생이 詩軸을 가지고 와서 청하기를, “神印宗의 중 玉明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생들과 놀기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觀親하러 가게 되므로 우리들이 詩를 증정하기로 하였으니, 그대도 한 수 지어 주오” 하기에, 내가 즉시 지어 주었으나, 일찍이 그의 얼굴은 접하지 못했었다. 두어 해 뒤에 내가 鷄林으로 귀양가 있는데, 浮屠한 사람이 나의 困厄을 민망하게 여기며 말이 款曲하기에 물어보니 곧 明商人이었다. 계림은 바로 그의 고향으로서 어머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와서 섬기는 것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의 효도 잘하는 것을 칭찬했었다..”⁵⁴⁾라고 하였다. 기사는 흥무 27년간이다.

태종 6년 병술(1406, 영락) 3월 27일(정사) 기록에는, “선교 양종의 사찰수와 토지, 노비의 수를 제한하고, 中道宗 · 神印宗은 합하여 30寺를 남기고, 南山宗 · 始興宗은 각각 10寺를 남길 것입니다.”라고 하여 신인종의 공식적인 자취는 사라졌다.

조선시대 일어난 신인종의 절멸에도 불구하고 신인종이 남긴 호국도량의 선행은 그 주체가 바뀌어 조선시대 적지 않게 개설되었다. 조선시대 빈번히 설행된 水陸齋도 국가의 전란에 희생된 혼령들을 위무하는 면모가 많았기 때문에 호국도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조선시대 간행된 밀교전적의 수와 성격을

53) 『陽村先生文集』卷8, 「詩」篇, <岬山住持圓公詩>, “圓公 神印之傳法也 氣淑而性靜 言寡而行修 予固重之 以爲方外之友 又屬豚犬以開其蒙 圓公晝夜訓誨不倦 期於有成 予益重之 建文三年春 得住雞林之岬山寺 以其母之居于其隣也 不辭而行 將以致養於晨昏 意欲携豚犬a007_098c與俱 予以其稚且弱也不忍遺遣于千里之外 不許其偕往 圓公色若不豫然 又擇其徒之慈惠者善付囑之”(출처: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36A_0100_010_0660_2003_A007_XML)

54) 『陽村先生文集』卷17, 「序」篇, <送明上人詩序>, “昔予在諫院 有儒一生袖詩來請曰 神印之釋玉明者 喜與吾儒遊 今歸觀也 吾儕贈以詩 願吾子亦惠一言 予乃爲賦之 而未嘗接其面 後數年 予謫在鷄林 有浮屠者 憫予困厄 辭語款曲 訊之即明也 雞林是其桑梓之鄉 而母在焉 故來事之 鄉人稱其善孝”(출처: 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036A_0200_010_0010_2000_003_XML)

살펴보면 대부분 훈령들을 위무하는 국가도량의 것이 많다. 신인종이나 충지종 등 호국도량을 개설한 종단은 사라졌지만 도량을 설행했던 주체는 변치 않고 존속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전남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에는 충지사지가 있다. 충지사에 대해 『東國輿地勝覽』에는 “승달산에 있다”는 기록과 『輿地圖書』에 “법천사와 동년대에 창건되었다”는 간략한 기록만이 있다. 기록뿐이다. 1925년에 간행된 구 무안군 지인 『綿城誌』의 佛宇條에는 “唐 開元年間(713~741)에 僧 淨明이 승달산의지명인 百雲山(지금의마협봉으로 청계면 청천리와 몽탄면 대치리 경계에 있는 높이 285m의 산에 창건하였다가 조선 현종 7년 병오(1666)에 지금의 사지로 옮겼고, 호남에서도 빼어난 사찰”이라고 적고 있다. 즉 충지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절로 『동국여지승람』(편찬1486)과 『면성지』의 기록에도 나타나 있지만 고려시대 충지종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추하기에는 사료는 부족하다. 충지사는 1810년까지 존속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⁵⁵⁾

55) 폐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천사에서 북쪽으로 20리 거리의 대치리 송정 마을 뒤에 충지사는 無畏三藏에게서 공부하고 돌아온 惠通이란 중이 세웠다. 그가 돌아올 때 眞言 密敎의 일파인 충지종의 비법을 깨우쳐 우리나라 최초의 밀교를 세웠다. 그 후 교세가 확장하여 태종때는 12종파의 하나로 꼽혔다. 이 충지종이 1406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도사가 본산인 南山律宗과 합해 攄南宗이 되고 다시 1424년 천태·조계 등과 합해져 선종이 된 종파이다. 충지사란 이름을 가진 절이 개성과 개풍·전주에도 있지만 무안의 충지사는 전남지방 선종의 본거지로 그 가람이 90여 채에 달하는 거대한 절이었다고 한다. 그 번창하던 거찰이 1810년을 전후하여 폐찰되어 지금 이 절터에 주춧돌만 남아 있다. 절에서 500m 거리에 석장승 2기가 입구를 지키고 있다. … 중략 …이 절이 폐찰된 것은 순조 때 증북 석성 현감을 지낸 林勉洙라는 인물의 세도 때문이었다 불교가 국가의 지도이념으로써 지위를 잃고 억불정책의 시련을 밟고 있던 시기였다. 임씨는 그의 아버지 묘를 충지사 뒤 쇠뿔등이란 곳에 썼는데 사찰 경내에 묘를 썼다고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한 중들이 묘지 한가운데 참나무 말뚝을 박아 버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사찰 철거를 명하였다. 그러나 중들이 이에 불응하자 강제로 철거하고 승방에 불을 지르니 일부는 본신자 살하고 일부는 지금의 승달산으로 피신하여 법천사에 있게 되었다 한다.(김경호 편저, 1987,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법천사의 경우 『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에 元의 승 圓明이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同 지리지 무안현 山川條에는, “元의 監川寺 僧 圓明이 승달산에 擇地하여 풀을 엮어 암자를 짓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 500여 명이 찾아와 함께 達道 하여 승달산이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법천사중수기>에는, “唐 武德 7년에 淨明이 중창, 永熙 庚戌년에 普元이 3중창, 惠寂이 4중창, 신라경덕 왕 8년에 靈翼가 5중창, 조선 인조십삼년에 靈旭和尚이 6중창 하였다”고 적고 있다. 지금은 계속(1913)년에 나주의 효자 丁丙愚가 이 터에 조그만 암자를 지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지종의 토대로써 개성, 개풍, 전주에 충지사가 있었고, 법천사는 신라시대부터 있다가 중창을 거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김경호 편저, 1987,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p264-266).

신인종의 근거지인 사천왕사와 현성사 등의 종찰은 발굴작업은 이루어졌으나 조선시대 신인종의 유찰들이 활약한 기록은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김시습의 『梅月堂詩集』 권12에는, “文頭婁법은 서천에서 유래된 것으로 신인종의 개조인 明朗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⁵⁶⁾라고 하여 신인종과 명랑, 문두루법에 대해 지자들은 여전히 알고 있었으며, 조선조 발간된 밀교전적에도 실담자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사실은 비록 총지종의 계통이긴 해도 후기 19세기초까지 밀교의 수법이 여전히 국가의 호국도량으로 밀교의 법식을 여전히 보존해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

2) 禪密兼修의 繼承

고려시대에 선사로서 呪誦의 神異를 보인 祖猷선사의 기록 외에 밀교로서 선 수행을 삼은 근거는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에 다라니를 주송하는 자를 백천삼매가 항상나타나기 때문에 禪定藏이라고 정의한 것에 기원이 있다.⁵⁷⁾ 고려시대 밀교승이 선에 적지 않은 조예를 지닌 것은 조선시대 선불교의 자취를 禪密兼修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안고있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東文選』 권88 「序」 편 「送息庵游方序」에는, “우리 집안의 김시용이 와서 말하길, 息庵선사는 신라의 왕족인데 12세 신인종에 입문해 출가한 후 공부가 향상하면서 증승선에 합격하였고 여러 사찰을 유람하다가 한차례 나옹을 만나 머지 않아 약가니 얻는 바가 있었다”⁵⁸⁾ 라고 하였다. 또한 신인종의 밀교승이면서 선에 심취한 승려의 기록은 같은 『東文選』 제78권 「古澗記」에서, “然師는 神印宗의 詩를 잘하는 스님이다. 그의 기상은 화목하고 마음은 담담하여, 功利와 명예의 마음

56) 『梅月堂詩集』 卷12 「詩○遊金鰲錄」, “文頭婁法出西天 神印宗源自朗傳 明信一期雖幻得 明信卽左氏語 不知茲事可安邊”.

57)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T20, 109b), “當誦持此陀羅尼者 … 當知其人是禪定藏 百千三昧常現前故”; 道殿은 『顯密圓通成佛心要集』(T46, 996b)에서는 이를 인용하였다.

58) 『東文選』 卷88 <送息庵游方序>, “吾門生金時用來言曰 息庵鷄林士族也 年十二投神印宗薙髮 學既進中僧選 歷住諸伽藍 一旦去而從懶翁游 久之似有得也 將有以質之翁 而翁逝矣 息庵違違焉欲遍走乎諸方 以質其所得而後已也 或者曰 古之浮屠 有鳥巢肩栢生肘 而不肯出戶限者 今彼上人 既號息庵矣”.

을 버리고 禪寂에 잠심하니, 당대 사대부들 중에 소중히 여기는 이가 많았다⁵⁹⁾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선적을 선종의 그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신인종과 선종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禪定의 그것이라 정의할 여지가 있다.

신인종의 명랑이나 지념업이 지향한 진언문은 『대일경』의 「入眞言門住心品」에 따른 것이다. 『대일경』에는 阿字觀이나 五字嚴身觀이 설해지는데, 아자관은 비로자나법신의 본심을 참구하는 것으로 실담 ‘阿字’ 진언의 염송과 관상의 수습을 통해 법신의 ‘本不生’의 도리를 참구하는 수행이다. 『眞覺國師語錄』에 보이는 修禪社 2세 眞覺國師(1178~1234)와 충지승과의 대화에서 진각국사가 충지승에게 無字陀羅尼를 묻자 충지승이 阿字陀羅尼라고 답하자 이를 인정한 대목은 진언문의 아자관과 禪觀의 상호이해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⁶⁰⁾ 진각국사도 출가 전에 승주로 득력한 내력이 있어⁶¹⁾ 출세간 수행에 대해 선가가 거리를 두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⁶²⁾

불가사의의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에소, “대저 진리의 지극한 도리는 말을 떠나고 相이 끊어져 있되, 기쁨에 응하여 모습을 보이니 나타내지 못하는 相이 없다. 이른 바 阿字 등의 수행문이 그 도리를 밝힌 것이다. 이 경전은 헤아릴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도리를 모아놓은 것이니, 때문에 여래의 가지에 의한 神力은 비밀한 手印을 보이고, 진언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밀교의 의식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불가사의는 경명과 공양등의 의식의 대의에 해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59) 『東文選』 卷79 德方院記, “神印宗都大師然公 性度慈仁 德量宏大 濟人利物 孜孜無已 老而安於桑梓之鄉 卽鷄林也 鷄林距蔚州僅百里”.

60) 『眞覺國師語錄』 室中對機(月精寺版 84)에 “寺間僧 關梨何業 僧云陀羅尼……寺云 偏正道着”이라 하였다.

61) 「松廣寺眞覺國師碑」(『朝鮮金石總覽』 上, 462)에 “從母乞出家 母不許 勉令業儒 然常念經 持誦呪久 乃得力 喜毀斥淫巫妖祠 或往往救人病有効”라고 하였다.

62) 작은중 계통의 승려 慧永(1228~1294)도, “친수경에 이르기를 이 주문은 염지하는 자는 총명하고 박식 하며 열심히 기억하여 잊지 않으니, 그 진언은 ‘唵阿盧勒繼娑婆訶(Oṃ Arolik svaha)’이다. 이 진언은 금강정경에 설해진 내용이며 관자재보살 마음의 진언이다”라고 하여 유가와 선, 밀교의 경계를 서로 호응한 것은 밀교가 증생의 안녕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보전과 자연재해, 전염병에 대한 치병의 방편을 수지하고, 상승의 법문에서는 진언과 다라니의 방편을 격의없이 수용하고 소통한 내력을 살펴볼 수 있다; 김수연은, “범서총지집 서문에서 禪定藏으로서의 다라니를 설한다고 하였다(김수연(2015), 215)

「진언행학처품」 제일에 대해, ‘크다[大]’라고 한 것은 ‘한량없다’는 뜻이다. ‘毘盧遮那’는 ‘태양’을 말한다. 즉 ‘지혜의 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불은 정각과 바른 지혜를 증득했다는 뜻이다. ‘神變加持’란 신통한 힘을 가졌다는 뜻이다. ‘經’은 뚫어 관통하고[貫穿], 꿰매어 잇는다[縫綴]는 뜻으로 이곳에 능히 진리를 밝혀놓았다는 뜻이다. ‘供養’이란 ‘理事供養’을 말한다. ‘理’란 진리를 만나 증득해 들어가는 것이니, 이것을 ‘理供養’이라 말한다. ‘事’란 마음을 다하고, 힘을 쏟아 향화로써 바다와 같은 부처님을 공양하는 일을 경영하고, 가리는 일을 말한다. 이것을 ‘事供養’이라 말한다.⁶³⁾

불가사이는 아자관을 통해 禪心을 도모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는 사공양에 밀교의 본의가 있다고 하였다. 禪旨는 ‘言語道斷 心行處滅’에 있지만 근본은 無位真人으로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休靜은 종래의 헌공의식을 선가의 취향에 맞게끔 개찬한 『雲水壇』과 『說禪儀』를 펴내면서,⁶⁴⁾ 관계된 진언들을 삼입시킴으로써 의식 자체가 밀교적으로 되게 하였고, 그에 이어 『雲水壇作法』, 『雲水結手文』, 『增修禪教施食儀文』 등이 찬술 시행되면서⁶⁵⁾, 선가의 밀교신앙은 그 내용이나 의식면에서 더욱 풍부스럽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보우, 휴정 이후부터는 많은 선승들도 자연스럽게 밀교 의식에 참여하거나 진언지송을 일과로 하였다.⁶⁶⁾

고려시대 『梵書摠持集』은 조선시대 빈번히 간행된 것으로 이곳 출처의 三種悉地眞言은 善無畏 번역의 破地獄系 밀교경전에 등장하는 것이다. 蘇悉地·入悉地·出悉地는 각각 上品悉地·中品悉地·下品悉地에 대응한다. 다시 상품실지는 대일여래의 密嚴國土에 왕생하며, 중품실지는 十方淨土에 왕생하고, 하품실지는 諸

63) 이하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三釋題目者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供養次第法眞言行學處品 第一者 大者即是無邊義也 毘盧遮那者是日 所謂即慧日也 成佛者證正覺正智義也 神變加持者神力所持也 經者貫穿縫綴能詮在此矣 供養者理事供養 理者會理入證 是云理供養也 事者盡心竭力營辦香花供養佛海 是言事供養也 次第者作禮及發遣之前後次第也 法者軌則之義也 眞言者簡虛妄也 行學者行學眞言也 處者此四種 一如法界自性 二教本也 三傳教師也 四妙山峰等也 品者品類也 第一者此法有五品 此品最初故言第一也 是以言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供養次第法眞言行學處品第一(『韓佛全』3, 383下).

64) 東國大學校編(1976), 佛教文化研究所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174-388-389.

65) 東國大學校編(1976), 佛教文化研究所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386, 390, 396

66) 서운길(2006), 『한국밀교사상사』, 847.

天和 修羅의 궁에 왕생하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중생구제를 위해 삼계를 소
 통하는 대승불교의 모든 의취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⁷⁾ 선불교는 無位眞
 人을 설하지만 대승의 법으로 법신·보신·화신의 三種身은 大乘經典에 두루 설한
 바이다. 馬祖時代 大珠慧海의 『頓悟入道要門論』에서는 大乘佛敎의 瑜伽를 밝혔
 으니 禪의 완성이 불신의 완성으로 전개시키고 있지만 밀교에서는 삼신을 성취
 하기 위한 태장계와 금강계수법의 眞言門 수행의 方便을 전개시킨 것이니 조선
 의 선사들도 이에 대해 소홀치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윤길은, “밀교의식문집의 간행경향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뜻으
 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는 조선조에서의 밀교는 종단폐합(또는 태종
 세종의 억불정책)을 계기로 하여 의식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숭불치하에서는 물론이요, 철저한 억불치하에서도 밀교는 오히려 의연
 한 발전을 해왔다는 것이다”⁶⁸⁾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조에는 불교종단을 통폐합하고 국가의 예속을 심화시켰고 더욱이
 고려시대 왕실의 국가의례와 관계가 깊었던 밀교종단은 흔적도 없이 의도적으
 로 지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밀교종단의 절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교도
 량과 전적의 간행이 적지 않은 이유는 불교신앙의 내면에 밀교의 외호와 호국의
 성격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밀교과 선과 융합하여 불사를 외면할 수 없
 었던 역사적 행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IV. 結語

삼국 가운데 늦게 시작된 신라의 불교 전래는 밀교를 통해 전통신앙을 수용하
 여 山神信仰과 불교가 공존하는 등 정착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교의 신앙적 위
 신력으로 인해 신라가 불교의 국가사회윤리를 수용하고 왕실과 백성을 위무하
 는 데 일조하였다. 신라의 初期 密敎는 密本의 역할에 의해 악신을 물리치라고 치

67) 善無畏 역의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界祕密陀羅尼法』,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界祕密三身佛
 果三種悉地眞言儀軌』,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界祕密陀羅尼』를 가리킨다.(서윤길(2006), 145).

68) 서윤길(2006), 『한국밀교사상사』, 810.

명의 효험을 보이는 것이었지만 神印宗은 護國道場으로서 四天王寺를 중심으로 종파를 초월해 국태민안과 사회통합과 外護의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 본 논문을 통해 아쉽지만, 다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三岐山을 중심으로 활동한 圓光과 呪術僧, 그리고 密本의 활동을 통해 초기 밀교의 흔적이 존재하며 밀본 시대 誦咒 중심의 수행이 明朗의 유학을 가정한 다면 도량을 갖춘 정비된 형태로 발전하였고 그 중심에는 『灌頂經』이 매개가 되어 密本과 明朗을 연결하고 있다.

둘째, 신라 밀교를 발전시킨 인물은 삼기산을 근거지로 활동한 주술승들이지만 명랑의 귀국 직후 선무외삼장이 입당함으로써 삼장의 『大日經』 번역에 의해 毗盧遮那佛의 진언문 수습에 관심을 가진 華嚴僧을 지목할 수 있다. 不可思議의 입당 유학도 그의 근거지인 靈妙寺가 화엄 승려들과 유관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셋째, 명랑의 문두루도량 시설과 이로 인한 문무왕대의 四天王寺 건립은 밀교의 호국 도량 건립의 전통을 만들었고 밀교의 극성기인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조선시대 간행된 많은 밀교 전적과 水陸齋 등의 梵唄에 爲國과 魂靈을 달라는 의식이 전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넷째, 고려시대에는 신인종 외에 혜통을 연원으로 한 懺持宗이나 持念業의 밀교종파가 공존하였지만, 종파에 따른 宗典의 독립적 문헌은 아직 보이지 않고, 신인종이나 총지종 모두 재난과 질병을 막는 위국 도량에 참여하고 밀교 문헌을 공유하였다.

다섯째, 고려말 禪宗이 부상하면서 밀교와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 밀교와 禪宗이 공유하는 禪密兼修의 풍도가 마련되었다.

조선 초 신인종이나 총지종 같은 밀교 종단이 절멸하였지만, 왕실이 주도한 호국 도량과 수록재와 밀교전적의 간행은 계속되어 19세기 초까지 懺持寺가 존재하였다. 총지사는 신인종과 출발은 달리하지만 조선 초 밀교 종단이 통폐합되면서 사실상 신인종과 총지종, 지념업 등의 모든 법식도 합쳐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조선불교가 禪密兼修의 풍도를 보존하였기에 오늘날 한국불교에 여전히 존재하는 禪, 看經, 念佛의 전통은 禮佛, 供養, 點眼, 腹藏 등 살아있는 밀교의식이 조선불교를 지탱했던 外護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연원은 삼기산과 신인종을 始原으로 오늘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대정신수대장경 : T

『妙法蓮華經』(T9)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T18)

『眞實攝經』(T18)

『無畏三藏禪要』(T18)

『三種悉地破地獄轉業障出三界祕密陀羅尼法』(T18)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界祕密三身佛果三種悉地眞言儀軌』(T18)

『佛頂尊勝心破地獄轉業障出三界祕密陀羅尼』(T18)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T20)

『佛說灌頂經』(T21)

『顯密圓通成佛心要集』(T46)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T51)

『大宋僧史略』(T54)

『眞覺國師語錄』(H6)

『白衣解』(H6)

『高麗史』(동아대본)

국사편찬위원회(1979-1984), 『朝鮮王朝實錄』,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徐居正 等撰(1975), 『東文選』 朝鮮刻本縮印本, 서울: 太學社.

權近, 신호열역(1979), 『陽村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No. 27-29 『陽村先生文集』, 경인문화사.

金時習, 『梅月堂詩集』, 『한국역대문집총서』 No. 65-69 『梅月堂文集』, 경인문화사.

李詹, 『雙梅堂篋藏集』, 『韓國文集叢刊』 第6集, 韓國文集叢刊DB, 한국고전번역원.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韓國文集叢刊』

- 朝鮮總督府 編(1919, 1976인쇄), 『朝鮮金石總覽』, 서울 : 亞細亞文化社.
- 一然, 이재호 옮김(1997), 『三國遺事』, 솔출판사.
- 權相老編(1979), 『韓國寺刹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 佛敎文化研究所編(1976),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 高翊晉(1989), 「初期密敎의 發展과 純密의 受容」 『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 김정호 편저(1991), 『전남의 전설』 전라남도.
- 서운길(2006),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 김수연(2015), 「고려시대 간행 『梵書摠持集』을 통해 본 고려밀교의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제41호.
- _____ (2015), 「고려시대 간행을 통해 본 고려밀교의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제41호.
- 김연민(2008), 「新羅 文武王代 明朗의 密敎思想과 의미」 『韓國學論叢』 30.
- 김영덕(2007), 「무외삼장선요 해제」, 『불교원전연구』(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박광연(2006), 「眞表의 占察法會와 密敎 수용」, 『한국사상사학』 26, 서울: 한국사상사학회.
- 박미선(2011), 「新羅 占察法會와 密敎」, 『동방학지』 155, 서울: 연세대 국학연구원.
- 千惠鳳, 「高麗 最高의 寶篋印陀羅尼經」(『국회도서관보』 제 9권 3호 및 『羅麗印刷術의 研究』).
- 박태화(1975), 「韓國佛敎의 密敎經典 傳來考」 『韓國佛敎學』 1.
- 문명대(1976), 「新羅 神印宗의 研究 -新羅佛敎와 統一新羅社會-」 『震檀學報』 41.
- 정병삼(2013),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교리적 해석과 신앙활동」 『불교연구』 제39집
- 조원영(2001), 「新羅 中代 神印宗의 成立과 그 美術」 『釜山史學』 40-41합.
- 현남(2007), 「無畏三藏禪要 를 통해본 禪 · 密교류에 관한 研究(I)-戒律를 中心으로-」 『한국선학』 제5호
- 高翊晉(1987), 「韓國古代 佛敎思想社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덕(1996), 「金剛界三十七尊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나영(2016), 『新羅時代 密敎經典의 流通과 그 影響』,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inin Order of Silla Buddhism

Cheong, Seongjoon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Esoteric Buddhism, Uiduk Univ.

This essay is to study on the Sinin Order(神印宗) of Silla Buddhism to examine the foundation of Defence of Fatherland Buddhism(護國佛教). The transmission of Buddhism which was late among four countries around Korean peninsula that had minized the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existing Shamanism and Buddhism by adopting primitive Esoteric Buddhism to persuade similarity of the two religions and supporting the power of presitige of new arriving religion. The invasion of Chinese Tang dynasty was frustrated Mudra Rite(文豆婁道場) constructed by Myeongreng which provided opportunity of building Sacheonwang Temple(四天王寺) and later Hyunseong Temple(現聖寺) in Koryo dynasty as a base of Defence of Fatherland Buddhism which lasted till Chosun dynasty. The source of Mudra Rite is *Consecration Dharani Eradicating Demons Sutra*(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 the 7th Chapter of *Consecration Sutra*(灌頂經) which was utilized by Myeongrang so there exist some linkage between Myeongrang and Milbon(密本) as the latter utilized *Medicine Buddha Sutra*(藥師經) which is 12nd Chapter of *Consecration Sutra* (灌頂經). The Koryo dynasty was the peak period of Esoteric Buddhism of Korean Budhdist History which inaugrated so many ritual and rite of Esoteric Buddhism which were established for defending frequent invasions of foreign enemies. The Sacheonwang Temple and Hyunseong Temple was center temple for those rite but at the same time the masters of Esoteric Buddhism still concerned in practicing Buddhist enlightenment by way of

Mantra and Dharani and attempt the integration of Esoteric Buddhism and Seon Buddhism, which were transmitted to Chosun Buddhism but those orders of Esoteric Buddhism like Chonji Order(摠持宗) and Dharani Up(持念業) were extincted by the new kingdom supported Confucianism as an ideology of Chosun dynasty.

Keywords : Sinin Order(神印宗), Esoteric Buddhism, Myeongrang(明朝), Sacheonwang Temple(四天王寺), Defence of Fatherland Buddhism(護國佛教), Mudra Rite(文頭婁道場)

투고 일자: 2021년 07월 14일

심사 완료: 2021년 08월 10일

게재 확정: 2021년 08월 19일